

소외계층 지원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목마른 사회 곳곳에 '나눔 한방울'

공기업 돋보기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적 책임활동(CSR), 공유가치 창출(CSV) 등 기업과 사회의 가치를 모두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물을 통해 행복을 실현하는 뜻을 담아 사회공헌 통합브랜드인 '해피워터'를 기반으로 물 공유가치 창출, 자원과 역량 활용 등 사회적 공헌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2004년 7월부터 창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자원봉사 단체인 '물사랑나눔단'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까지 전국 45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수도관, 씩크대 등 노후 수도시설을 개보수해 약 1만 1460명이 이용하는 물 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임직원이 함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보수하고 사회적 기업이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는 식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식수를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해외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안나, 몽골 등 물 부족 지역의 식수개발과 주민지원 등 현재까지 9개국 총 32회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업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돕는 'K-water 해피워터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소외계층 대상 의료봉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의료단체와 함께 '사랑나눔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약 3만8000명 주

민들에게 양·한방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9회 활동해 약 410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댐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해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효나눔복지센터(8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독거노인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및 노래·국악교실,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여가활동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물 공유·사회적가치 창출 앞장 노후수도관·씩크대 개보수 등 임직원 전국 각지서 자원봉사 노년층엔 생활·정서 모두 지원

청소년 과학인재 양성 '활발' 소외계층 학생엔 장학금도

초고령화 마을이 많고 경제적 자립여건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자활 근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생활도움미, 도시락배달 등 복지서비스 지원형부터 마을환경정화, 학교급식지원, 저수지 수질감시 등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자활 근로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인재육성 '희망 멘토링'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희망 멘토링'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대학생과 공사 직원들의 진로멘토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와 고민상담 등 미래희망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긍정적 미래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나눔대상 멘토링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물의 소중함과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과학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물드림 캠프'를 2012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5만800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자유학기제 활성화 교육부 장관 표창수상 등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도시와 비교해 교육기회가 적은 댐 주변지역 아동들을 위한 청소년 특기·특성화 교육, 원어민영어·음악·과학교실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진로 탐색 및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육기자재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 등 미급수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물 복지를 제고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해 푸드트럭 등 청년 실업자·저소득층창업 지원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적 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물, 환경 관련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실용적 아이디어의 발굴 및 성장 자금 등 사업화 실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 91개의 기업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 한 뒤 기업 별 아이디어 사업화 실현 자금을 지원했다. 각 기업의 최종 사업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기술 지원 등 공사의 CSR 관련해 연계할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물로 더 안



(위쪽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한국수자원공사 '물드림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미안나 짜옥단 마을에서 파이프매설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대학생이 꼽은 꿈의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초봉 높고 수도권 위치해 인기 (한전) 공항공사 > 철도공사 順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됐다. 대학생들은 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순으로 입사를 선호했다.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회원 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36곳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16.5%)가 꼽혔다. 선택이 유 중에서는 '관심업종'(24.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선호 성비는 여성(75.9%)이 남성(24.1%)보다 3배 많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해 신입사

원 초봉은 4400만 원 선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며, 수도권에 위치해 타 공공기관에 비해 출퇴근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인기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한국전력공사(15.0%)가 차지했다. 한전은 조사 이래 8회나 1위 자리를 수성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은 곳이다. 이어서 ▲한국공항공사(8.8%) 3위 ▲한국철도공사(7.2%) 4위 ▲한국토지주택공사(5.5%) 5위 ▲한국조폐공사(5.3%) 6위 ▲한전KPS(韓)(4.8%) 7위 ▲한국도로공사(4.7%) 8위 ▲한국가스공사(4.3%) 9위 ▲한전수자원공사(4.1%) 10위 순으로 톱10에 랭크됐다.

올해 대학생이 선호하는 공기업 순위의 특징은 1,2위 두 곳 모두 지난해와 같아 막강 투톱임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첫 10위권에 진입했고, 공항공사 두 곳이 나란히 상위권에 들었다. /한용수 기자 hys@

코엑스, 스타트업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로 거듭

무협, 내달 8일까지 접수 '피칭데이·실증기회 결합'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코엑스에 민간 최초의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엑스 스타트업 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에는 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엑스 내 기업들은 입주 스타트업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방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코엑스 입주 기업이 상생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긍정적인 모델을 추구한다.

특히 코엑스, 더블유티씨서울, 서울오션아쿠아리움, 한국도심공항등 코엑스 내 4개 사도 동참해 ▲행사 참가자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실내 길찾기 ▲아쿠아리움 AR 및 영상매체 활용 ▲유휴 컨테

<코엑스 4개사 테스트베드 관심분야>

/자료=한국무역협회

구분	테스트베드 관심분야	사례
코엑스	*콘텐츠 관련 신규서비스 *참관객과 참가업체 비즈매칭 앱 *전시컨텐츠 일자리 매칭	-대형 복합시설 능동화 안내 -행사 참가자 빅데이터 분석 등
WTC서울	*4차산업기술 활용한 쇼핑몰/주차장 관리 *공실창고 활용 부가가치 창출 *최신 기술활용 매장 홍보	-VR/AR 기반 실내 길찾기 -창고활용 식물공장 -Interactive 광고 -목적지와 가까운 주차면 안내
도심공항터미널	*리무진 버스고객 대상 신규 서비스 *여행업 관련 신규 서비스	-리무진 방문활용 VR/AR -수하물 보관·배송관련
아쿠아리움	*수중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영상 매체	-수중 드론 -VR/AR/신개념 광고 등

이너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시연 가능한 견본 제품이나 솔루션이 있는 스타트업은 오는 8월 8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칭 후 최종 선발된 기업들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게 된다.

무역협회 조상현 스타트업 글로벌지

원실장은 "이번 테스트베드는 피칭데이와 기술 실증기회 제공이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협력 모델"이라며 "혁신에 목마른 대·중견기업의 테스트베드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기획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